욥기9/2/2019

**저자**: 욥기는 주인공 욥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나, 저자는 욥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정 시대(솔로몬 이후)에 살았던 히브리인이 기록한 것으로 본다. 이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주 사용됐기 때문이다 (서론인 1-2장, 본론 중 하나님의 말씀과 결론인 38-42장에서 25번 사용했고, 대화 중에서는 12:9에서 한 번 나옴).

**연대**: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볼 때, 솔로몬 통치(주전 970년)와 바벨론 포로생활(주전 58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욥은 실제로 주전 20세기 경의 인물로 추정되는데 (아브라함 시대), 이는 본문에 스바와 갈대아가 언급되는 것 때문이다.

**주제**: 인간의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 의인에게도 고난이 온다. 욥의 이야기는 경건한 의인이 오래 동안 고난을 당하며 믿음의 갈등 속에 씨름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지식인들의 지혜가 위로보다는 아픔과 걸림돌이 되기 쉬움을 보여준다. 의인이 고난은 참 경건의 테스트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영적 영역의 전쟁의 일환임을 가르쳐 준다.

**개요**

1. 서론 (1-2장)
2. 욥의 축복 (1:1-5)
3. 욥의 시험 (1:6-2:13)
4. 본론-대화 (3-27장)
5. 욥의 애가 (3)
6. 첫째 논쟁 (4-14)
7. 둘째 논쟁 (15-21)
8. 세째 논쟁 (22-26)
9. 막간: 지혜 (28)
10. 독백 (29:1-42:6)
11. 욥의 호소 (29-31)
12. 엘리후 (32-37)
13. 하나님의 교훈 (38:1-42:6)
14. 결론 (42:7-17)
15. 하나님의 판결 (42:7-9)
16. 욥의 회복 (42:10-17)